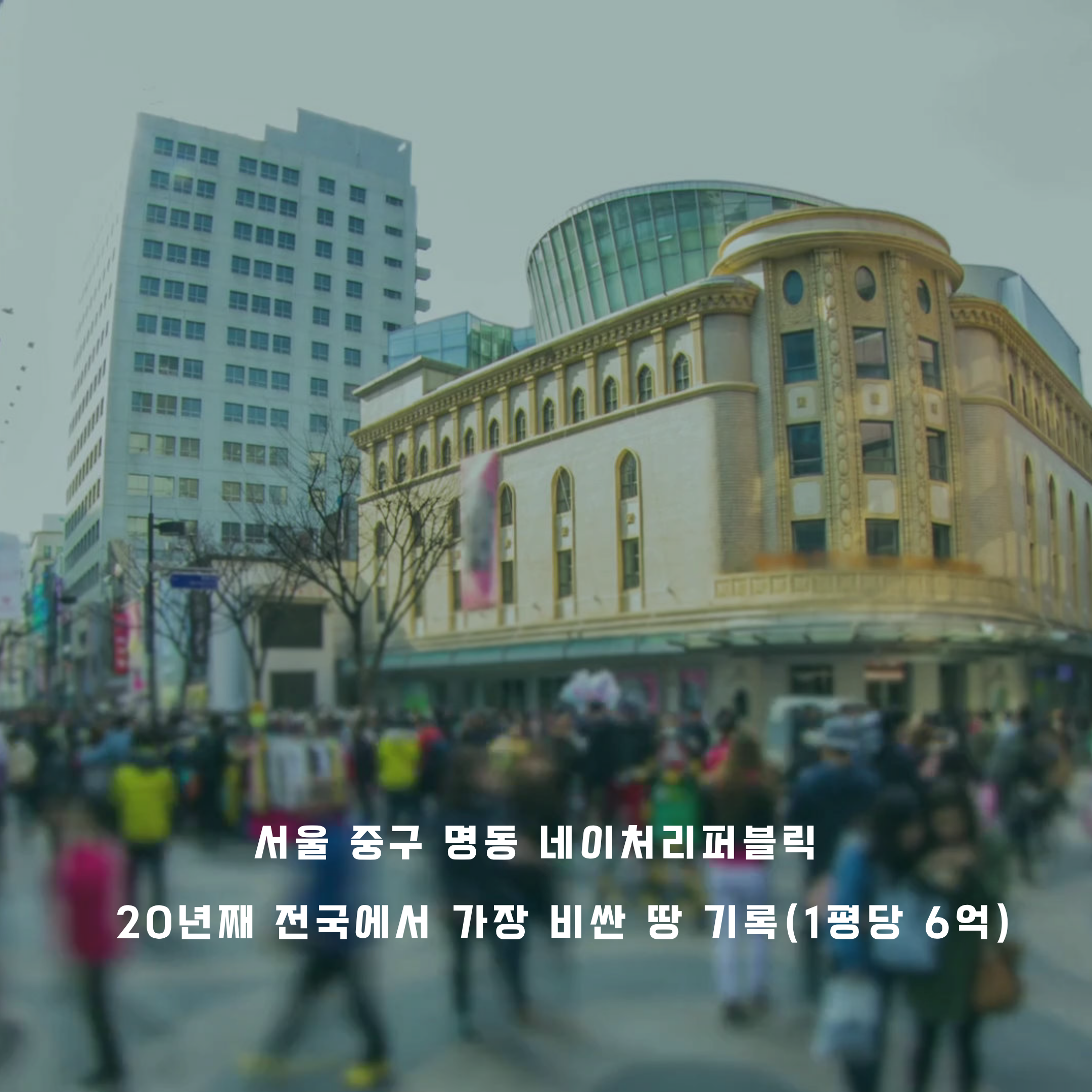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REMEMBER WE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기록(1평당 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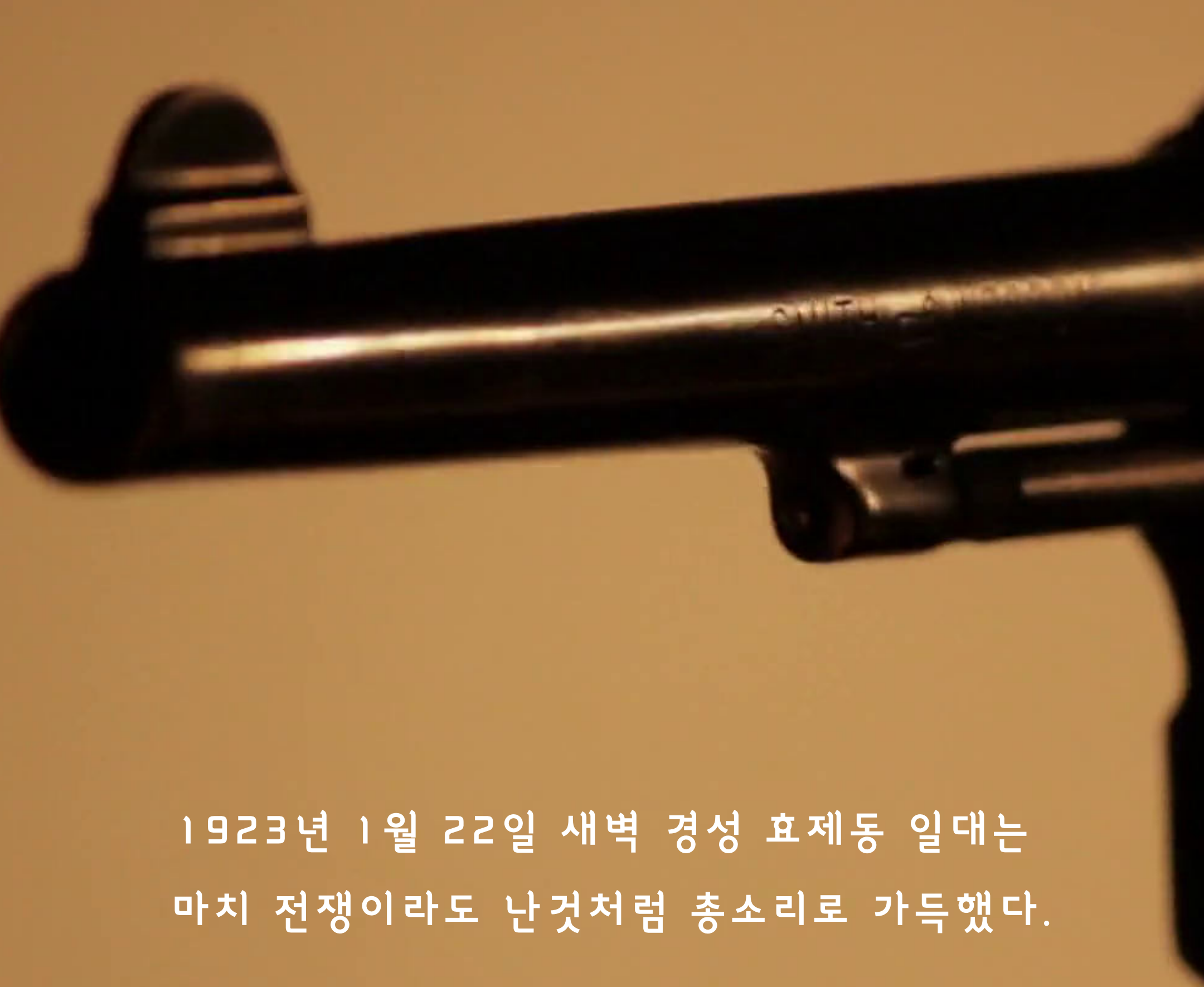


현재가치로 600억이 넘는 명동일대의 땅과 건물을 모두 팔고

이회영을 포함한 집안 전체가 만주로 향한다.

우당 이회영은 1911년 6월
만주의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 '신흥강습소'를 세운다.

바로 대한제국의 청년들을 최정예 군사로 만든
'신흥무관학교' 이다.



1923년 1월 22일 새벽 경성 효제동 일대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총소리로 가득했다.

일제의 군경 수백명이 한 남자를 쫓으며 격전을 벌였다.



'동대문 홍길동' '경성피스톨' 로 불리던 김상옥 의사는
16명을 사살하고 남은 총알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직원 50명의 번창하던 '영덕철물점' 사장이던

20대 김상옥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의 길을 걷는다.



6월

3 일

모집대상 - 14세~19세 청소년

활동날짜 - 6월 3일(토)

(13:30~18:00)

활동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3층 밝은방

활동내용 - VR & 3D펜 체험

역사 강연

활동혜택 - 기념품 & 봉사시간

지원방법 - QR코드 스캔

네이버폼 작성



보훈테마활동

Remember We - 김상옥, 이회영

Remember We

프로 그램 안내



강연 - 서해성 감독
(14:00 ~ 16:00)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 선생 전시를 기획
한 전문 기획자이자 예술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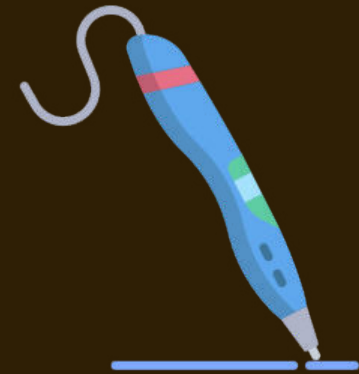


VR체험
(16:00 ~ 18:00)

일제시대 배경 체험
사격 체험

3D펜 체험
(16:00 ~ 18:00)

3D펜으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전달할 기념품 만들기



이회영 / 김상옥 관련
기념품 증정

봉사활동 제공





보훈테마활동
참가 신청 QR

문의 070-7099-1612

REMEMBER WE